



## 에티오피아의 경제개혁과 빈곤완화전략\*

김판석  
연세대학교

Firehiwot G. Araya  
연세대학교

백인림  
연세대학교

이 연구는 에티오피아의 경제개발과 개혁 프로그램 그리고 빈곤완화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에티오피아는 그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기본 서비스의 확장 등을 통하여 다른 아프리카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국가경제가 지나치게 농업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에 기반시설의 확장, 호텔과 관광산업 등의 발전으로 인하여 서비스분야가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여전히 최빈국 중의 하나이고 경제구조도 지나치게 대외원조에 의존적이다. 따라서 자원동원과 인적자원개발이 에티오피아의 정책영역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은 접근성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하다. 그리고 급증하는 인구증가를 통제하는 것이 에티오피아의 국가발전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므로 여러 정책과제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주제어: 에티오피아, 경제개발, 경제개혁, 빈곤완화전략,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413-B00024).

## I. 서 언

지난 10여년간 에티오피아는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경제 시스템을 가진 국가로 알려져 왔고, 국제저널 ‘The Economist’에서는 성장 속도가 비교적 빠른 경제를 가진 국가 중의 하나로 에티오피아를 선정 하기도 하였다. 평균적으로 에티오피아의 경제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연속적인 2배의 성장속도를 보인 것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매년 11%씩 성장하여 왔다(CIA, 2011). 빈곤인구비율도 1995년 47.5%에서 2004년에 38.3%로 축소되는 등 다른 사회지표들도 이러한 에티오피아의 경제 발전을 반증해 주고 있다. 특히, 서비스 분야와 산업분야의 확장이 경제성장과 빈곤 관련 변화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에티오피아는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확장과 성장을 장려하고자 여러 가지 동기들을 계속해서 부여하여 왔다.

그런데 서비스의 보급과 질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는 확연하지만 도시와 지방의 큰 격차는 아직까지 주요 문제로 남아있다. 보급의 접근성 그리고 서비스 이용비용의 불평등은 에티오피아의 도시와 지방에서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에티오피아의 보건부는 무엇보다도 공공보건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적절한 공공시설과 현대기술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해외직접투자(FDI)의 유입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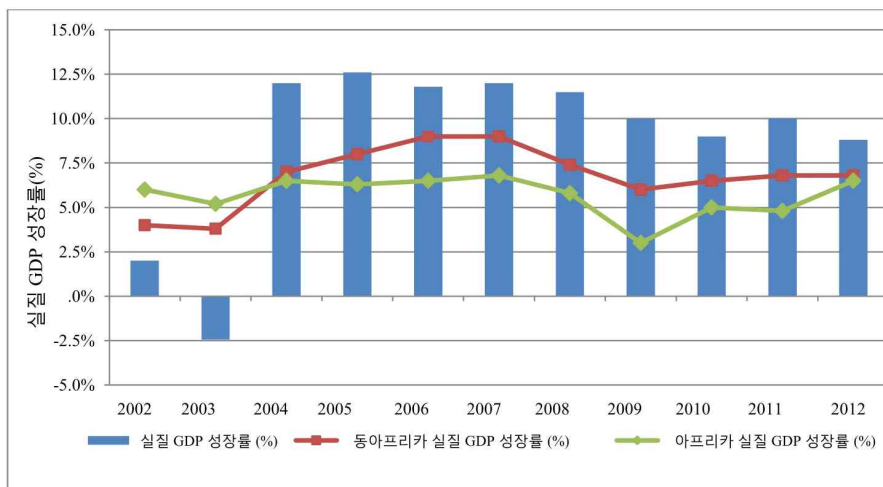
이 논문은 에티오피아의 주요 경제와 사회 지표 등을 이용하여 에티오피아의 최근 성장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제2장에서 경제 성장과 발전 동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제3장에서는 에티오피아가 민주국가로 전환된 후 적용해 온 빈곤완화전략과 개혁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각 분야의 주요변화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결론에서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 II. 경제발전과 성장

에티오피아가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

실이다. 이 성장은 주로 서비스 분야(14.5%), 그 다음으로 산업 분야(12.2%)에 의해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AEO, 2011). 이 두 분야가 눈에 띄는 성장을 이끌고 있는 반면, 농업 분야에서의 기여는 매년 6%로 거의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다. IMF는 높고 끊임없는 국내물가상승률(34.7%: 2011년 5월 기준), 국가회계가치의 급격한 하락 그리고 높은 실업률(26%) 때문에 성장이 느려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정부는 신용과 화폐공급의 수축 등 금융조절수단의 조화를 통해 물가 상승 억제에 힘썼다. 하지만 수출 촉진과 대외준비자산의 증진이라는 목표와 함께 국가회계의 평가절하(20%: 2010년 기준)가 경제 성장을 느리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에티오피아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10%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2011년부터 5개년 경제 개발 계획과 함께 화폐정책실행을 기획하고 있다.

<그림 1> 에티오피아와 동아프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간의 실질 GDP 상승률 비교



자료: CIA(2011).

지난 2009년 국제경제위기로 인해 주요 전통적인 수출상품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0년부터 수출은 아주 천천히 회복 중에 있다(Economy Watch, 2011). 반면 2010년 수입은 GDP대비 27.2%로 전년 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는 대규모 무역과 국제수지 적자를 야기하는 이 수입수치가 2015년부터 매년 30-35%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

나, 경상수지는 2010/11년 GDP의 -6.4%에서 2011/12년 -11.9%로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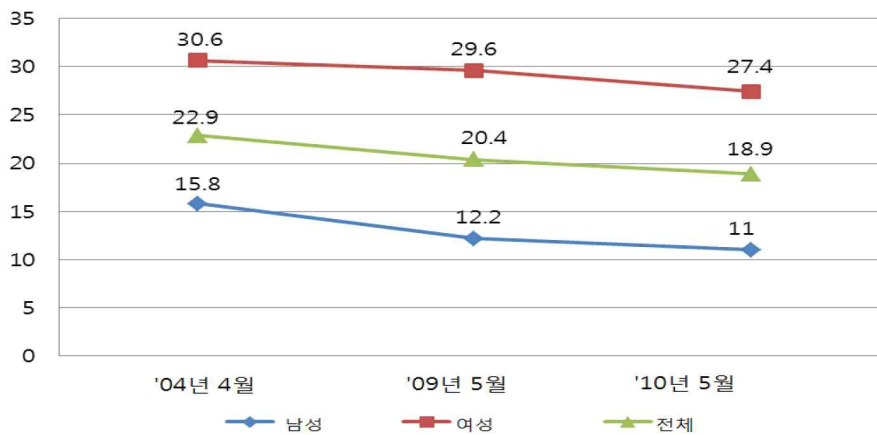
〈표 1〉 에티오피아의 거시경제지표

	2009	2010	2011	2012
GDP 실질성장률	9.9	8.8	10	8.6
CPI 인플레이션	36	11.2	17.6	14.3
GDP 대비 수지균형	-0.9	-2.3	-3.5	-4.1
GDP 대비 경상수지	-5	-6.6	-6.4	-11.9

자료: Africa Economic Outlook(2011).

지난 몇 년 동안 에티오피아가 여러 빈곤지표를 통해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과 변화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로 남아있다. 에티오피아의 UNDP 인간개발지수는 2010년 1인당 평균수입 350달러로서 사하라 사막 남쪽국가(SSA) 평균 1,077달러(2009년 기준)보다 낮은 수치로 169개의 국가 중 157위를 차지했다(HDI, 2010). 게다가 에티오피아는 높은 물가상승률, 어려운 경상수지 상황과 높은 실업률에 허덕이고 있다(<그림 2> 참조). 중앙통계청(CSA, 2010)의 도시고용실업조사(UEUS)에 따르면, 2010년의 총 취업자 수는 2004년보다 40.5% 증가했지만, 도시 실업률은 20% 선에 이르고 있다.

〈그림 2〉 에티오피아의 도시 실업률 경향



자료: CSA(2011a)에서 발췌인용.

### Ⅲ. 빈곤 완화 정책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에티오피아도 빈곤감소전략(PRSP)을 제시하고 있다. 원래 빈곤감소전략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개발기구에서 원조를 받던 개발도상국들이 국제적인 통합과 사회적인 합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만든 주요 정책이다. 에티오피아도 그러한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그들의 중기적 목적을 토대로 만든 빈곤감소전략과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3년마다 이를 업데이트 하고 있다. 지금까지 에티오피아는 전반적인 국가개발의 틀로서 세 번 이상 빈곤감소 전략을 준비하여 실행하였다. 에티오피아는 첫 번째와 두 번째 5개년 개발 계획(FFYDP와 SFYDP)을 2001년에 고안하였다(MoFED, 2006). 더불어 일련의 경제개혁프로그램(ERPs)들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자본주의시장 시스템에의 적용, 거시경제의 안정 및 회복 그리고 호의적인 경제발전을 생성하기 위한 여러 관점들이 종합되어 기획된 것이었다. 여기서 물가안정과 구조조정 정책 등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또한 에티오피아는 거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 광역자치 수준과 기초자치 수준(WOREDA)의 개혁을 실행함에 있어서 분권화를 추구하였다.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시행된 첫 번째 빈곤감소정책(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Programme: SDPRP)은 중기적 목적을 지닌 빈곤퇴치전략이다. 첫째, 정책 SDPRP 다음에 2005년에 시행된 2번째 빈곤감소 5개년 계획은 빈곤 근절을 위한 지속적 차원의 발전계획(Plan for Accelerated and Sustained Development to End Poverty: PASDEP)이다. 이 계획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근본적인 음식의 자급자족 가능과 MDG달성에 목적을 두었다. 둘째, 정책 PASDEP은 중기적인 발전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 계획은 주로 MDG달성, 지방과 도시의 발전, 그리고 식량안전보장과 능력향상을 겨냥한 전략이다. 이 기간 동안 에티오피아에서는 비교적 높고 지속된 경제발전과 눈에 띄는 사회적, 인적 개발이 이루어졌다(World Bank, 2011).

에티오피아 재무경제개발부(MoFED)에서 발간된 PASDEP의 2006년/2007년 연간증진보고서는 PASDEP적용이 높을 때, 일관된 경제발전 그리고 분명

한 사회적, 인적 발전이 발견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기간 동안 빈곤과 웰빙에 대한 성장이 늘어났다. 또한 공공재정과 ODA의 흐름도 향상된 것을 볼 수 있고, 개별 분야에서도 향상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배적인 수입의 불평등, 지독한 빈곤, 높은 물가상승률, 낮은 수익 그리고 부족한 제도화는 경제적인 성과를 위한 주요 과제로 남겨졌다.

지난 2010년 새로운 성장과 변화 계획은 다음 5개년 경제발전의 가속화를 위해서, 교육과 보건서비스의 질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과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안정적인 거시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이 계획은 국가의 전략을 외국의 투자에서 지역 위주의 경제 위주로 바꿀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14.9%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은 공공기반시설, 농업생산성 그리고 국가 산업분야의 생산성의 확장을 포함하고 있다.

## IV. 주요 분야의 발전 경향

### 1. 공공재정

에티오피아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투입요인으로서 공공재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에티오피아의 수입은 주로 세금징수와 외부보조 그리고 해외송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에티오피아의 회계연도는 에티오피아의 달력 기준으로 7월부터 6월이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공공분야에서 세금 징수의 향상과 보조금 관리를 겨냥하는 것과 함께 다른 전략과 개혁을 추진해왔다. 예를 들어, 총수입과 보조금은 21.3%로 늘었지만, 2008/09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국내수익은 2009/10에 34%로 늘었다(MoFED, 2009). 에티오피아는 해외의 원조를 받는 국가 중 하나로서, 2008년 에티오피아로 지출된 총 ODA는 33억 달러로서 실질가치로 볼 때 GDP 대비 2008/09년도의 4.3%에서 2009/10년도의 3%로 감소했다.

국내세수 증진과 함께 지속적인 외국의 원조는 에티오피아정부로 하여금

공공기반 시설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게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장을 촉진하여 왔다. 그러나 세계경제 침체와 원조 감축 등으로 인하여 해외원조도 변화하고 있다. 원조감소는 에티오피아가 세금과 다른 수입에서 자원을 증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티오피아의 조세시스템은 고용세, 수입세와 수취입대세, 판매세 그리고 부가세(15%)와 같은 서로 다른 직접세와 간접세를 포함한다. 사실 조세수입은 GDP점유율의 증가(2008/09년도의 8.6%에서 2009/10년도의 11.3%)를 보여주고 있다(MoFED, 2010). 하지만 직접세보다 간접세의 몫이 더 크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빈약한 처지에 있는 직접세의 위상은 정부수입의 기반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투자자들을 장려하기 위해 주어진 감세조치로 인해 에티오피아는 탈세와 절세로 인한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에티오피아 세금징수 시스템이 세금징수와 행정에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또 다른 지방세의 근원은 국가적인 저축인데, 아프리카의 표준과 비교해봐도 에티오피아의 국가적인 저축률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2〉 정부의 일반수입

항목	연도				2008/09와의 차이	
	2009/2010			2008/2009		
	예산	실제	예산내 비율	실제	비르(화폐단위)	%
전체 세입과 원조	68,875	66,238	96.2	54,626	11,612	21.3
국내수입	52,728	53,861	102.1	40,173	13,688	34.1
세금수입	9,499	43,315	109.7	28,997	14,318	49.4
직접세	14,052	14,903	106.1	9,858	5,045	51.2
간접세	25,447	28,412	111.7	19,139	9,273	48.5
국내간접세	9,581	10,727	112	7,325	3,402	46.4
해외무역세	15,866	17,685	111.5	11,814	5,871	49.7
세외수입	13,229	10,546	79.7	11,176	-630	-5.6
외부원조	16,147	12,377	76.7	14,453	-2076	-14.4
보조금	7,845	5,561	70.9	4,858	703	14.5
CPF/DBA 보조금	8,302	6,816	82.1	9,595	-2779	-29

환율: 2010년 6월 기준(US\$ 1: birr 13.5).

자료: MOFED(2010).

〈표 3〉 에티오피아에 대한 ODA의 지급

(단위: 100만달러, 현재시세)

	2004	2005	2006	2007	2008
국제기구	747	696	914	1,287	1,453
총 기부	1,809	1,910	1,964	2,563	3,327

자료: MOFED(2010).

## 2. 기업부문

경제 발전을 위한 주된 개입 중 하나는 지역사업부문을 강하게 하는 것과 해외직접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시장은 태만, 잘못된 경제정책 그리고 높은 수준의 정부 규제로 시달려왔다. 하지만 기타 여러 가지 개혁들과 성장하고 있는 농업중심, 수출중심 그리고 노동장려에 중점을 둔 산업 발전 전략(2002)의 도입을 통해 에티오피아에서의 사업분위기는 비교적 호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에티오피아가 하고 있는 사업의 순위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183개의 국가 중 111이었던 순위가 2010년 102번째로 올라서는 발전을 보여 주었다. 에티오피아는 현재 사하라 이남 지역의 거의 모든 국가를 넘어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2004년 4개의 절차와 44일에서, 2011년 단지 5개의 절차와 9일로 향상되었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기업가들은 여전히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국제경쟁력보고(2011-2012)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에서 사업을 하는 데에 가장 문제가 되는 요인들은 부족한 재정 접근성, 심한 외화규제, 높은 물가상승률, 비효율적인 정부관료체제, 높은 세금규제와 부패 등이다. 최근 들어 높은 물가 상승은 경제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정부-민간 협작을 통해 그리고 18개 품목에 한한 가격규제를 통해 물가상승률을 극복하고자 했지만, 이 같은 정부의 노력은 시장과 사업환경을 오히려 악화시켰다. 다른 문제점들은 낙후한 제도(법제도, 금융제도, 신용제도), 부실한 금융시장, 공공 기반시설의 부족 그리고 기술

1) OECD 평균을 보면 5.6개의 절차가 필요하고 13.8일이 걸린다.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은 8.9개의 절차와 42.5일이 소요된다.



진보 부족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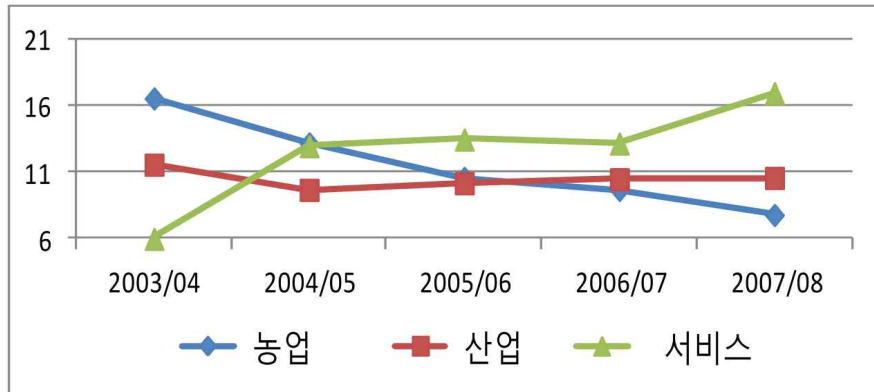
그리고 민영화도 필요한데, 민영화는 1990년대 중반부터 착수된 시장중심 개혁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 민영화와 공기업 감독 당국의 구조조정(PPESA)에 의해 민영화는 가속화되었다. PPESA에 따르면 2007년에 관광부 문, 광업분야, 산업분야 그리고 농업-산업분야에서 14개의 기업들이 민영화되었고, 공기업이 민영화 된 숫자는 214개이다. 이 중 8개의 기업은 지분판매를 통해 그리고 나머지는 벤처기업과의 조인트를 위해서 민영화되었다.

민간 부문의 발전에 있어서 매체를 통한 홍보, 중소기업의 기업(MSME) 또한 중요하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몇몇 분야의 기업을 교육훈련, 사업기술발전, 소액대출, 정보 접근 그리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왔다. PASDEP 아래에서 정부는 기업능력과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부문 능력향상의 발전프로젝트(PSD-CB)에 집중하고 있다. MSME는 기업가가 획기적인 사업구상과 작은 규모의 산업일지라도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에도 적용되었다.

### 3. 서비스 부문

에티오피아 경제 성과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서비스 부문의 확장이다. 에티오피아의 재무경제개발부(MoFED)의 발표에 따르면 에티오피아는 서비스 부문의 GDP 성장에 과감히 투자했다. 또한 이 투자는 2009년에 14%로 늘어났다. 이것은 2009년 6월에 끝나는 회계연도(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에 에티오피아 GDP의 45.1%를 차지하였다(<그림 3> 참조). 그 동안 지배적이었던 농업 분야는 GDP의 43.2%로 낮아져 서비스 분야의 다음을 차지하였다. 여기서 서비스분야 발전의 주역은 호텔, 식당, 금융중개, 공공분야와 부동산의 확산이다.

〈그림 3〉 에티오피아 경제의 분야별 지분



자료: CSA(2009)와 IMF(2010).

에티오피아 정부는 성장과 공공기반시설을 동시에 확장시키기 위해 국가 에너지정책과 함께 전기의 확장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지방을 겨냥한 보편적인 전력접근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공급능력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다른 확장 정책도 펼쳤다. 총 4개의 수력발전정책 건설에 따라,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정책이 전력공급의 증가로 이어지길 희망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보급률의 좋지 않은 전력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상당한 수력자원에도 불구하고 물의 분배와 관리는 균등하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하수의 공급도 감소 되었고 공공기반시설도 구식이라서 효율적이지 못하다(EEPCO, 2010).

두 번째로 중요한 공공기반시설은 통신 시설이다. 에티오피아는 사하라 이남 국가들 중에서 뒤떨어지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통신주식회사(ETC)는 통신 공공기반시설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투자를 시도하였다. 에티오피아 통신 주식회사에 따르면 세계무선통신시스템(GSM)과 WCDMA<sup>2)</sup> 네트워크의 용량은 2009년 말 8,762,047에서 2010년 말 18,408,780로 늘었다. 총 고객층은 지난 회계연도와 비교해서 45.8%로 늘었고 핸드폰 이용자도 54.63%로

2) WCDMA는 Wideband CDMA의 줄임말로 CDMA의 방식을 3G로 업그레이드한 기술방식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WCDMA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성통화는 물론이고 화상통화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늘었다. 국제적 연결용량도 초당 5.57기가 바이트로 확장되었다.

#### 4. 농업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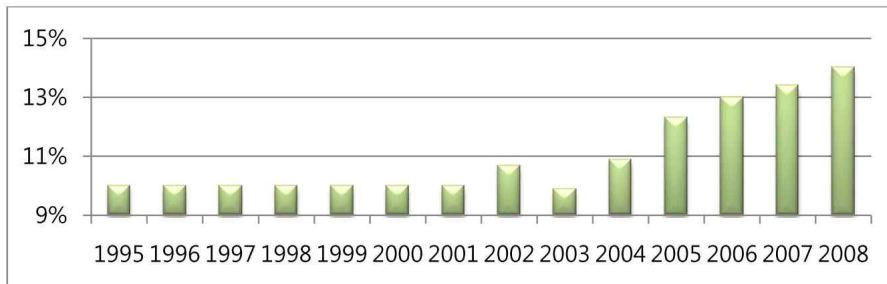
에티오피아의 농업은 단순히 경제영역 중의 하나가 아니라 에티오피아 인구의 지방경제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총 인구의 85%). 최근 서비스부문이 농업부문의 GDP를 뛰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여전히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GDP의 45%, 수출의 80%, 총 취업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주된 수출품으로는 커피, 꽃, 껌, 종자, 설탕, 가축, 콩 그리고 전통적인 식물 ‘캣’이다(MoA, 2011). 그러나 농업 시스템의 낙후, 극심한 가뭄, 관개시설의 부족, 토양의 영양부족, 인구의 급증, 정부의 개입부족, 농업생산성의 부진과 외부의 음식 의존이 계속되는 것 때문에 아직도 헤쳐 나가야 할 관문들이 많다. 에티오피아는 자급 자족을 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급 자족이 불가능한 상태로 사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국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달은 정부는 농업발전중심의 산업화 정책(ADLI)을 도입하였다. 이는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기반과 생산량을 구축하고 고용률과 수입을 늘리며 다른 분야의 발전을 도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 정책의 주된 목적은 농업 생산성의 촉진, 농부의 기술에 대한 접근향상과 종자의 질, 비료 향상 그리고 농경법의 확산 등이다. 또한 이 정책은 생산적인 토양을 늘리기 위해 시행되었다. 주된 변화는 경작지의 증가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이다. 2009/10년 주 경작물 토양은 2008/09년도의 추수량을 넘어서면서 농산물 경작지(2.61%)와 경작생산량(5.60%)의 증가를 보여주었다(Trade Economics, 2011).

농업개발주도 산업화(Agriculture Development Led Industrialization: ADLI)의 도입 이후로 경작지의 증가로 인한 생산성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총 국토면적 중 69%는 농업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 2008년엔 총 국토면적 중 35%만이 농경지였고 경작지는 14%였다. 이것은 10% 밖에 되지 않았던 2001년보단 늘어난 수치이다. 농경지 이외에는 5%만이 관개시설이 확충된 경작지이다(Trade Economics, 2011). 수질관리와 조절에 대한 경험의 부족,

관개를 위한 자본의 부족, 그리고 다양한 기후와 질병 때문에 관개된 땅은 국가의 잠재력에 훨씬 못 미친다. 영구농경지의 비율은 2000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0.5%에서 1.1%로밖에 늘지 않았다.

〈그림 4〉 에티오피아의 경작지



자료: Trade Economics(2011).

농업 부문에서 중요한 것은 가축이다.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의 일상과 보편적인 경제발전에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가축 수는 아프리카에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몇몇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가축이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인식된다. 에티오피아 중앙통계청(CSA) 농업샘플조사(2010/11)에 따르면 지방의 송아지 수만 5천만 마리 이상이고 주로 식용과 우유생산에 활용된다. 우유생산을 위한 양과 염소의 수도 2,550만, 2,270만 마리로 추정된다. 농경용과 교통 수단으로 사용되는 말과 당나귀, 낙타 그리고 노새의 수는 각각 220만, 620만, 110만 그리고 385,507마리로 추정된다. 총 가금류는 4,930만 마리로 추정되며, 꿀 또한 중요한 에티오피아의 주식 중 하나이다. 현재 에티오피아에는 500만개가 넘는 양봉시설이 있는데 500만개의 전통양봉시설과 4만 1천 개의 중간 단계 양봉시설 그리고 144,000개의 현대식 양봉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에티오피아의 정부와 민간부분의 관심부족, 생산성 발전을 위한 기술향상의 부족, 교통수단의 부족<sup>3)</sup>, 전통적 금기와 미신들 때문에 아직 완벽한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발전하고 있는 또 다른 농업은 국내소비와 수출에 목적을

3) 이 문제는 고기유통에 있어 질적 문제 때문에 중요시 여겨진다.

두고 있는 원예와 꽃 생산이다. 원예 생산은 식량소비 증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영양소와 미네랄의 섭취 그리고 농부에게 잉여물자매각의 기회를 줌으로써 수입증진에 기여한다. 에티오피아의 다양한 기후와 토양 덕분에, 열대작물과 아열대 작물 그리고 온대 원예작물까지 경작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는 양상추, 오이, 양파, 콩, 감귤류, 망고, 파파야, 바나나, 아보카도, 호박, 구아바, 콩 같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을 생산할만한 잠재력이 있다. 에티오피아는 예전부터 중동과 유럽연합국가 등 주변 국가에게 신선한 과일을 수출해 왔다. 최근 원예부문은 확장되고 있고, 주된 외화의 원천이 되고 있다. 다른 부문과 비슷하게 정부의 개입부족과 발전된 기술사용부족 그리고 투자 제한 때문에 이 부문의 GDP에 대한 기여도는 제한적이다.

## 5. 교육 부문

에티오피아에서 교육은 접근성, 보급력, 입학률, 질적인 부분 등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정부는 1994년 MDGs의 달성과 전반적인 시스템의 향상을 위해 이 정책을 추진하였다. 지난 1994년 이전의 교육시스템은 6년의 초등교육, 2년의 중등교육 그리고 4년의 고등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단계의 끝에는 학생들의 선발을 위한 국가시험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이후 교육과 훈련정책 전략이 도입되면서 정부는 8년의 초등교육(기초교육의 1-4학년과 심화교육의 5-8학년), 2년의 일반적인 중등교육(9-10학년), 그리고 2년의 실습 위주의 중등교육(11-12학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냈다. 국가 시험은 현재 10학년과 12학년 말에만 시행되고 있고 8학년(초등교육) 후의 시험은 지역 수준의 시험으로 대체되었다.

수준 높은 교사와 그들의 전문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교사 선발 국가 자격의 기준을 강화하였다. 현재 에티오피아의 국가자격기준은 1-4학년을 가르치기 위해선 '10+1'이라는 자격증이 필요하고 5-8학년은 '10+3'이라는 자격증이 필요하다. 국가 표준에 따르면 중등 교사는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충분한 교육학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에티오피아의 초등 교사들은 장기 혹은 단기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과 근거리의 원격학습에

대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인 변화와 함께 정부와 개인투자자들에게서 교육시스템은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교육에서의 정부 지출은 교육의 질 향상을 가져온 학교증축을 통해 눈에 띄게 늘었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기관의 개수는 1995년 2개의 국립대학교와 16개의 연계되거나 독립적인 2년제 대학에서 2009/2010년 26개의 국립고등교육시설(대학포함)과 64개의 승인 받은 비정부 고등교육기관으로 총 90개 증가했다. 또 현재 여러 분야의 훈련을 제공하는 126개의 중간단계의 교육기술교육기관(TVET)이 있다. 이 기관들에는 섬유와 의류생산, 제빵과 제과 호텔 산업과 외식산업, 전자기술분야와 전기분야, 농업분야의 생산(축산공학과 식물과학) 그리고 건설분야 등이 포함된다.

<그림 5>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그리고 총지출



자료: MoFED(2010).

교육시설의 확장과 함께 취학률 또한 늘었다. 이는 에티오피아를 MDG의 2번째 목적인 보편적인 초등교육을 시행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중 하나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표 4>는 2009/10년 초등수준의 취학률이 남녀 평균 93.4%로 늘어난 것을 보여준다. 또한 <표 5>에서처럼 고등교육으로의 취학률도 비슷하게 증진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육 시설과 취학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스템은 교육의 질과 발전된 기술 사용의 측면에 있어 여전히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표 4〉 초등교육으로의 취학률

(단위: %)

연도	초등 첫번째 단계 (1-4학년)			초등 두번째 단계 (5-8학년)			초등(1-8학년)		
	남	녀	총	남	녀	총	남	녀	총
2005/06	123.9	111.2	117.6	67.4	49.8	58.8	98.6	83.9	91.3
2006/07	122.9	111.2	117.1	68.3	53.7	61.1	98.0	85.1	91.7
2007/08	133.0	122.5	127.8	64.8	55.5	60.2	100.5	90.5	95.6
2008/09	126.7	118.4	122.6	65.6	60.5	63.1	97.6	90.7	94.4
2009/10	123.2	114.3	118.8	67.4	63.5	65.5	96.6	90.1	93.4

자료: MoE(2010).

〈표 5〉 고등교육으로의 취학자 수

	등록자수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전체		
	남	여	총	남	여	총	남	여	총
학사학위	255788	88319	344107	50970	25310	76280	306758	113629	420387
석사학위	11136	1485	12621	689	171	860	11825	1656	13481
박사학위	744	47	791	0	0	0	744	47	791
총	267668	89851	357519	51659	25481	77140	319327	115332	434659

자료: MoE(2010).

하지만 정부가 초등교육을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빈곤 때문에 학용품이나 교복들을 아이들에게 사주지 못한다. 또 다른 걱정은 그들이 어떻게 배고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느냐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모들은 집안의 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 아이가 학교에서 지내는 것보다 집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이것이 취학률을 낮추는 제일 결정적인 이유이다. 특히, 부모들은 여자아이들을 일찍 결혼시키기 위해 학교로 보내지 않는다. 낮은 교육의 질 또한 커다란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 적합한 공공 시설의 부족(교실, 의자, 책상, 책, 도서관, 전기 등), 교사의 동기부여 부족, 그리고 지역사회 학교에 대한 태도 또한 취학률을 낮추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 6. 보건 분야

에티오피아에서 보건의 보급은 사하라 이남의 국가 중 최악이다. 정부는 1993년 민주화와 지방분권화와 함께 보건접근과 예방, 보건의 촉진,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국가적인 보건정책을 도입했다. 보건시스템은 여러 단계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제일 낮은 단계의 보건소 시스템이다. 두 번째 단계는 지역 단계의 병원이고, 세 번째는 더 높은 단계의 특화된 병원들이다(MOH, 2010). 보건분야 발전프로그램(HSDP)은 5년 단위로 나누어 지는 20년의 보건전략이다. 주된 프로그램은 말라리아, 결핵과 나병, 에이즈 그리고 맹인의 방지 등이다. 보건 확대 프로그램(HEP)은 가장 소외된 지역사회를 겨냥하여 설계된 것이다. 훈련된 의료진 보급을 통해 보건보급을 향상시키고 MDG 달성을 가능케 하는 사회기반건설을 목표로 한다. HEP는 3개의 주된 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위생과 환경 위생, 질병예방과 통제, 가족복지) 2명의 지도원(HEWs)을 배정하고 하나의 보건소(HP)를 세운다. 이 곳의 활동은 에이즈예방, 성병과 결핵, 말라리아 예방과 통제 그리고 면역 등의 다양한 개입들을 포함한다. HEW는 사회기반의 보건소확대프로그램(CBRHAs)에 따라 그들 시간의 75%를 가정방문과 원조수행에 투여한다. 지난 2008년 3월 기준으로 1년간의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총 24,534명의 HEW들은 나라의 여러 구역으로 배치되었다(Earth Institute, 2009). 보건소확대프로그램(CBRHA)은 피임기구를 분배하고 지역사회의 동원과 예방을 위해 활동하며 말라리아에 대한 인식을 해당 지역사회에서 고양시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외된 지방에서의 보건활동의 접근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는 여전히 주요지표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2009년 발행된 에티오피아 보건개요조사(WHO, 2009)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기대수명은 남성 53세, 여성 56세로 세계평균 68세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54세로 거의 균등하다. 성인의 치사율은 지역적인 수준 383과 세계평균 176보다 훨씬 높은 412명이다(<표 6> 참조).



<표 6> 에티오피아의 보건 지표

		에티오피아	지역평균	세계평균
기대수명	남성	53	52	66
	여성	56	56	71
	전체	54	54	68
성인 치사율(15세-59세의 성인 1000명 중)	전체	412	383	176
5세 이하 어린이의 치사율(100,000명 중)	전체	104	127	60
모성 사망률(100,000명 중)	전체	470	620	260
폐결핵의 전염(인구100,000 중)	전체	572	475	201

자료: WHO(2009).

에티오피아에서 깨끗한 식수 공급과 위생시설은 에이즈 예방차원에서 커다란 공중보건 문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에이즈의 감염률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평균 5.0보다 낮은 2.4이다. 하지만 도시의 전염률은 9.3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있다(<표 7> 참조). 향상된 물 보급률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도시와 지방의 격차 또한 굉장히 크다. 거의 모든 도시가 향상된 식수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90%), 지방은 40% 이하에 그치고 있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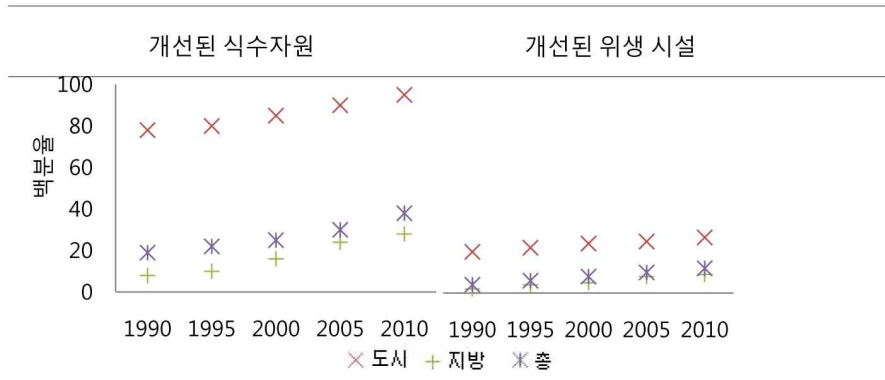
<표 7> 2010년 성인 HIV 발병 현황

(단위: %)

	아디스아바바	에티오피아
성인 HIV 유포율(15-49세)	9.2	2.4
성인 HIV 발병률 - 도시(15-49 세)	1.52	2.04
성인 HIV 발병률 - 지방(15-49 세)	0	0.2

자료: FHAPCA(2007).

〈그림 6〉 개선된 물과 위생을 사용하는 인구



자료: WHO(2010).

## V. 결 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경제 위기는 에티오피아에서도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제구조와 정책 결정 등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에티오피아는 빈곤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개발정책을 꾸준히 수행하여 왔다. 이것을 위해서 거의 모든 경제사회 영역에서 3번의 연속된 단계적인 5개년 전략이 시행되었다. 예를 들어, 빈곤완화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PRSPs)들은 다른 발전전략들의 설계와 실행의 기초가 되었다. 현재 2030년까지 중위소득국가로 발돋움하려는 목적을 지닌 성장전환계획(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GTP)아래 세 번째 PRSP 단계가 진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점진적인 경제성장을 보였고 앞으로도 개선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성장은 서비스 부문과 산업확장이 뒷받침해준다. 예전엔 농업만이 GDP에 기여했지만, 요즘은 서비스 부문의 GDP에 기여하는 바가 농업을 추월하였다. 이는 고무적인 일이지만, 전반적인 전략 성공과 경제발전은 국가 재정 부족과 행정능력의 제한 등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새로이 뜨고 있는 민간부문 또한 높은 물가상승과 시장의 높은 정부개입으로 인해 발

전이 더디다. 국가재정의 높은 적자는 공공서비스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건강과 교육부문의 확장도 필요하지만 조심해야 할 면이 있다. 확장을 하게 되면 현재의 질을 높이게 되겠지만, 미래에도 이러한 질 향상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겠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건강과 교육부문 모두 부족한 인원과 시설 때문에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두 영역과 유사하게 농업부문도 불규칙한 비와 강수량, 가뭄 그리고 현대화된 농업시설의 부족 때문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 현대화된 관개시설 그리고 향상된 씨앗과 농업방식이 모자란 상황에서 부족한 자본 투자는 농업부문의 발전을 어렵게 한다.

빈곤완화전략보고서에 적혀진 정책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 정부는 각 부문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높은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제향상과 발전에 호텔과 부동산 같은 부문의 확장이 큰 역할을 했지만, 그러한 서비스부문의 확장이 청년실업자의 고용확대와 연계되지 못하면 금방 또 다른 사회경제적 문제와 마주칠 것이다. 인구증가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서비스와 그 제반 시설들의 확장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피임약 분배와 산아제한 교육 등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과 기업가활동을 장려해야만 한다. 이처럼 수많은 난제가 놓여 있기 때문에 공공분야의 정책개발, 정책추진능력이 배양되어야 하고, 공공 거버넌스와 각종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적인 물자지원과 같은 원조도 필요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종 공공정책과 제도개선 등에도 많은 국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Abay, T. W. (2010).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In Sub Saharan Africa: The case of Ethiopia*. Ottwa, Canada: The North- South Institute (NSI).
- 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ADB). (2010). Ethiopia's Economic Growth Performance: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Economic Brief*, 1(5):1-5.
- African Economic Outlook(AEO). (2011). *Africa Economic Outlook for Ethiopia-*

2011. <http://www.africaneconomicoutlook.org>.
- Central Intelligence Agency(CIA). (2011). *The World Fact Book: Ethiopia*.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et.html>
- Central Statistical Agency(CSA). (2006). *Ethiopia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05*. Addis Ababa, Ethiopia and Calverton, Maryland, USA: Central Statistical Agency and ORC Macro. <http://www.csa.gov.et>.
- \_\_\_\_\_. (2009). *Ethiop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Indicators, 2008*. CSA- Ethiopia, <http://www.csa.gov.et>.
- \_\_\_\_\_. (2011a). *Statistical Report on the 2011 Urban Employment Unemployment Survey Statistical Bulletin*. CSA- Ethiopia, <http://www.csa.gov.et>.
- \_\_\_\_\_. (2011b). *Agriculture Sample Survey 2010/2011*. CSA-Ethiopia. [www.csa.gov.et](http://www.csa.gov.et).
- Development Assistance Group(DAG). (2006). *Ethiopia: A Plan for Accelerated and Sustained Development to End Poverty (PASDEP)*. Ethiopi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http://www.dagethiopia.org>.
- \_\_\_\_\_. (2010). *Federal Democratic Republic of Ethiopia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GTP), 2010/11-2014/15 Policy Matrix*. Ethiopi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 \_\_\_\_\_. (2011). *Aid coordination and ODA trends in Ethiopi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 Earth Institute. (2009). *The Health Extension Program: Center for National Health Development in Ethiopia*. <http://cnhde.ei.columbia.edu/programs/hep/>.
- Economy Watch. (2011). *Ethiopia Economic Statistics and Indicators*. <http://www.economywatch.com/economic-statistics/country/Ethiopia/>.
- Human Development Report(HDR). (2010). *Human Development Report Statistical Annex*. UNDP. <http://hdr.undp.org/en/>.
-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2009). *Request for a 14-Month Arrangement under the Exogenous Shocks Facility-Report*. <http://www.imf.org/external/pubs/ft/scr/2009/cr09296.pdf>.

- \_\_\_\_\_. (2010). *Regional Economic Outlook: Sub-Saharan Africa- Resilience and Risks*. <http://www.imf.org/external/pubs/ft/reo/2010/afr/eng/pdf/sreo1010.pdf>.
-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MoFED). (2006). *Ethiopia: Building on Progress, A Plan for Accelerated and Sustained Development to End Poverty (PASDEP)*. Ethiopia: MoFED.
- Ministry of Works and Urban Development(MWUD). (2007). Plan for Accelerated and Sustained Development to End Poverty (PASDEP), *Plan for Urban Development and Urban Good Governance, Ethiopia*. Ministry of Works and Urban Development.
- Oumer, Jeilu. (2009). *The challenges of free primary education in Ethiopia, Educational costs and financing: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Paris, Franc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 Planning. (IIEP), <http://www.iiep.unesco.org>.
- Trade Economics. (2011). *Agriculture irrigated land (Percent of total agricultural land) in Ethiopia*. New York City: USA, <http://www.tradingeconomics.com/ethiopia/agricultural-irrigated-land-percent-of-total-agricultural-land-wb-data.html>.
- World Bank. (2004). *A Country Status report on Health and Poverty, Ethiopia, Report No.28963-ET: Ethiopia*. The World Bank, Africa Region Human Development & Ethiopia Ministry of Health
- \_\_\_\_\_. (2005). *Education in Ethiopia,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for Sustainable Progress*. A World Bank Country Study: World Bank
- \_\_\_\_\_. (2007). *Urban Labor Markets In Ethiopia: Challenges and Prospects, Volume I*. Synthesis Report: 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Management Unit Africa (Region),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he World Bank.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09), *Ethiopia Health Profile*. Addis Ababa, Ethiopia: WHO.

### 에티오피아 관련주제 주요 정부기관 홈페이지

AIDS resource center- <http://www.etharc.org/resources/download>

Central Statistical Authority- Ethiopia- <http://www.csa.gov.et>

Ethiopian Agriculture Portal- <http://www.eap.gov.et/>

Ethiopian Business development Service network- <http://www.bds-ethiopia.net/import-export.html#products>

Ethiopian Electric Power Corporation (EEPCO)- <http://www.eepco.gov.et/>

Ethiopian Institute of Agricultural Research- <http://www.eiar.gov.et/>

Ministry of Education (MOE) - [www.moe.gov.et](http://www.moe.gov.et)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MoFED)- [www.mofed.gov.et](http://www.mofed.gov.et)

### 주요 용어 약어표

ADLI- Agriculture Development Led Industrialization
CSA: Central Statistic Authority
ERP: Economic Reform Programmes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GSM: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
GTP: 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HDI: Human Development Index
HEP: Health Extension Program
HEW: Health Extension Workers
HP: Health Post
HSDP: Health Sector Development Program
MoFED: Ethiopian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MSME: Medium, Small and Micro Enterprises
PPESA: Privatization and Public Enterprise Supervising Authority
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PSD-CB: Private Sector Development Capacity Building
SDPRP: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Programme
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UEUS: Urban Employment Unemployment Survey
WCDMA: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 Ethiopia's Economic Reform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y

**Kim, Pan Suk**

Yonsei University, Korea

**Firehiwot G. Araya**

Yonsei University, Korea

**Baek, In Rib**

Yonsei University, Korea

This study reviews economic development, reform programs, and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in Ethiopia. The country remains amongst the poorest in the world. Compared to the rest of sub-Saharan Africa, Ethiopia is performing relatively well in economic growth and expansion of basic services, but the country's economy is highly dependent on agriculture and foreign assistance. Recently, with the expansion of infrastructures, hotels, and tourism, the service sector is taking the lead in economic growth. Resource mobilization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 need to be the priority policy areas in Ethiopia. It is also important to improve both the access to and the quality of each service. Moreover, it is mandatory for Ethiopia to develop strategies to control the alarming increase in population growth.

[key words: Ethiopia, Economic Development, Reform, Poverty Alleviation Strategies]

논문접수일: 2011.11.30, 수정일: 2011. 12.15, 게재확정일: 2011.12.20

제1저자: 김판석

소속 및 직위: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장, 정경대학 행정학전공 언더우드특훈교수

주소: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길,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정의관 316호

전화: (033) 760-2534 이메일: pankim@yonsei.ac.kr

제2저자: Firehiwot G. Araya

소속 및 직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전공 박사과정

주소: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길,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정의관 316호

전화: (033) 760-2534 이메일: fregbree@yahoo.com

교신저자: 백인립

소속 및 직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사회과학부 조교수

주소: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길,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정의관 316호

전화: (033) 760-2392 이메일: mach4643@yonsei.ac.kr